

HI Economy

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달러와 호주달러

2017/07/17

■ 달러화, 지난해 9월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 역시 지난 6월 30일자 보고서(달러 추가 하락할까?)에서 달러화 약세를 예상한 바 있지만 예상보다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달러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더더질 수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다. 지난 6월 FOMC회의 결과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던 금융시장의 시각이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옐런의장 발언 등을 통해 비둘기파적 해석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예정대로 4분기부터 진행될 여지가 높지만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다.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흐름에서 보듯 미국 경제지표가 기대를 잇따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분기 GDP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 애틀랜타 연준의 추정치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률은 2.4%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2% 중후반대 예상보다는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압력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 펀더멘탈 약화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 물가지표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노믹스 지연 우려이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트럼프 주요 정책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은 달러화 약세를 촉발하고 있다.

넷째, 양호한 Non-US 경기 모멘텀이다. 대표적으로 유로 경제의 경우 양호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머징을 대변하는 중국 지표 역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음은 달러화 약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중이다.

■ Non-US 경기와 달러 약세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호주달러 급등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

진용재

(2122-9206)

yj@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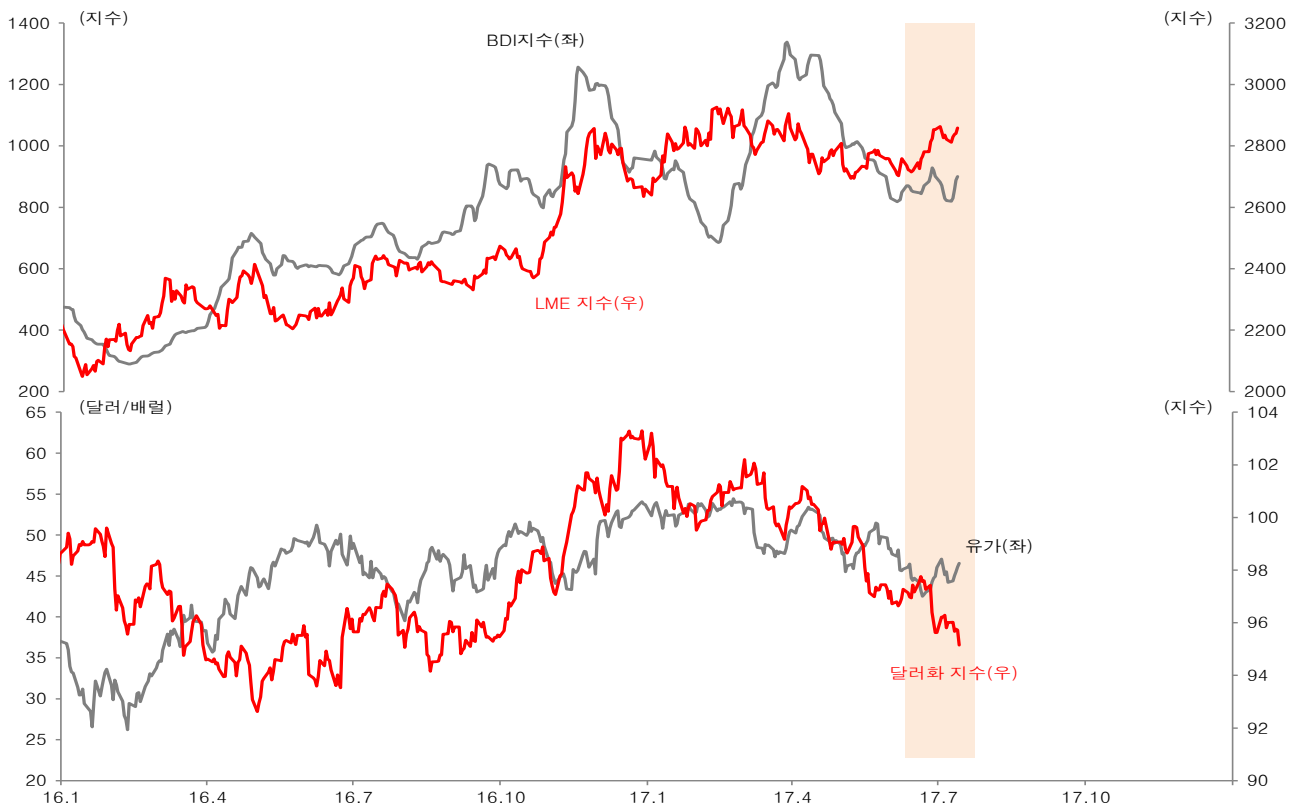
달러화 약세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달러화 약세가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 경제지표가 기대보다 부진하지만 경기사이클의 추세적 둔화를 시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유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 Non-US 경제 펀더멘탈의 양호한 흐름 역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킬 공산이 높다.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및 BDI 지수의 반등 현상은 달러화 흐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펀더멘탈과 정책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원자재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대변하는 호주달러가 급등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달러/호주달러 환율은 7월 14일 종가기준으로 0.7832달러로 지난 15년 5월초 이후 최고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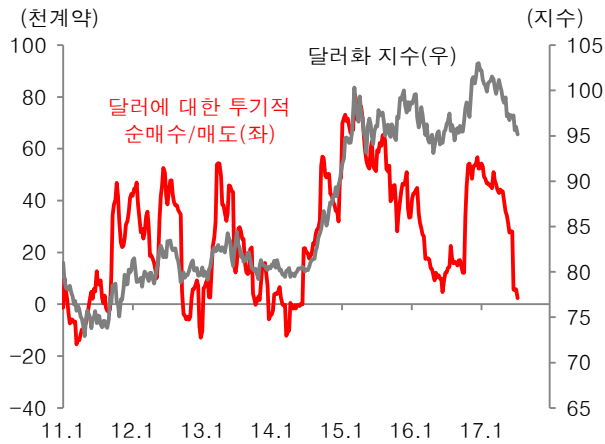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 현상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화가치 추가 강세 가능성은 외국인 투자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주요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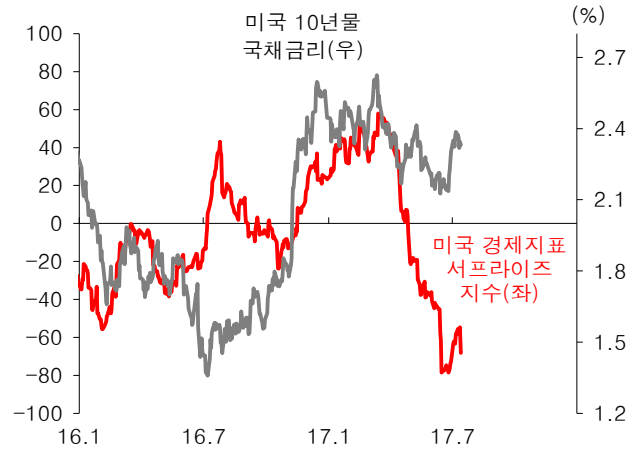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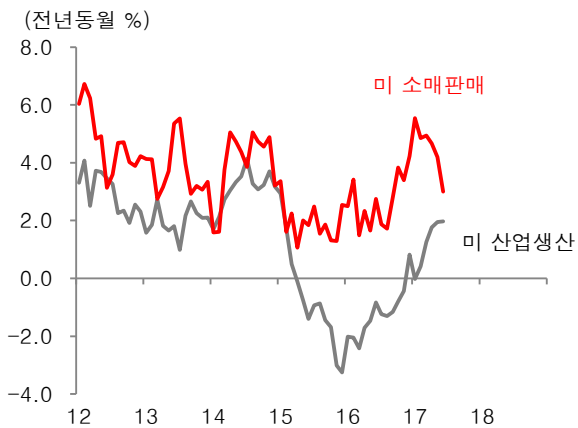
<그림 2> 달러 약세 심리가 확산중임을 뒷받침하는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매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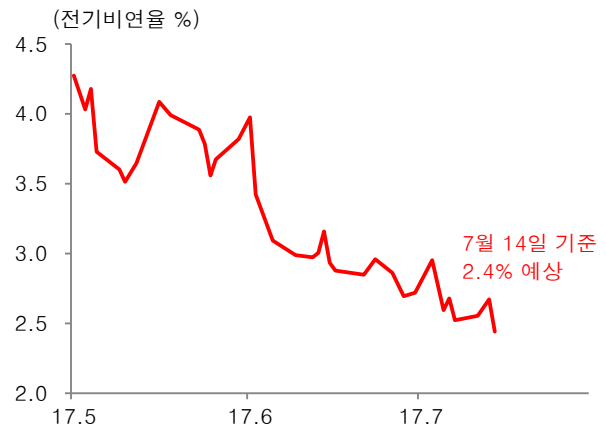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경제지표 부진을 시사하고 있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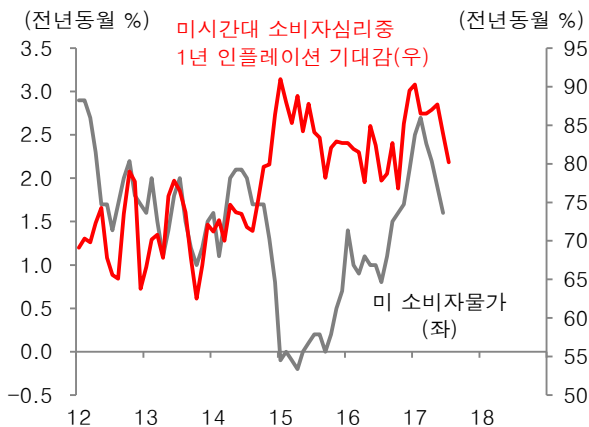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 둔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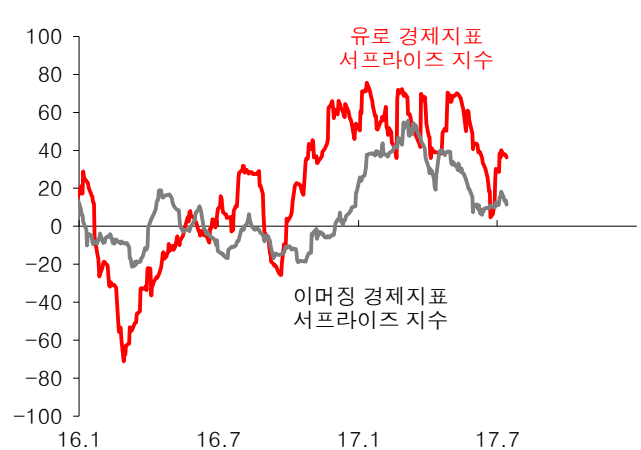
<그림 5> 미 애틀랜타 연준의 2Q GDP 추정치가 2.4%까지 하락함



<그림 6> 미국내 물가 기대감 역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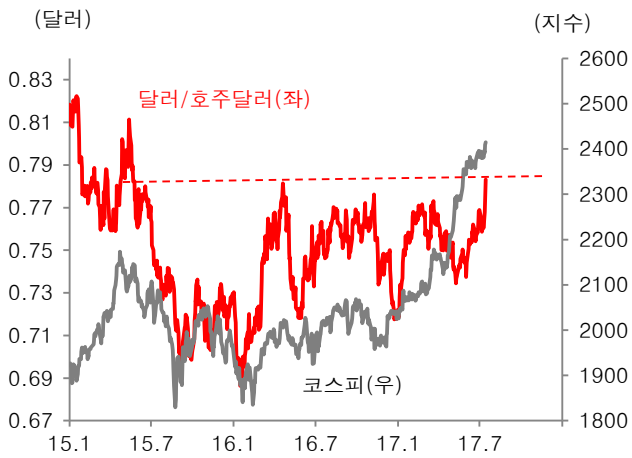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는 달리 유로존 및 이머징 경제지표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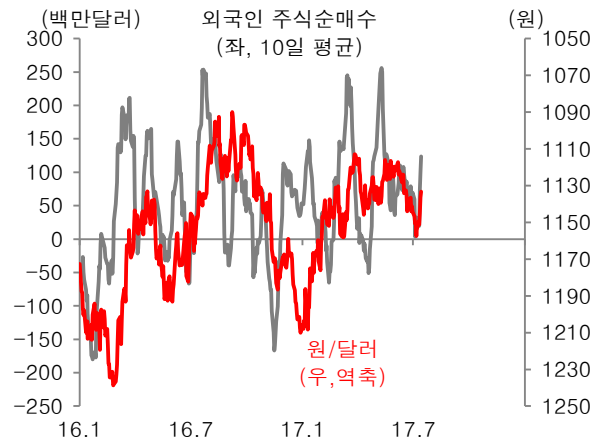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 8> 호주달러의 급등은 중요한 위험자산 선호 시그널



<그림 9> 원화 추가 강세 기대감 등은 외국인 투자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진용재)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역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